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의 ○○○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차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많은 분들께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해당 표시는 그 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임을 의미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교통 대책의 하나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버스의 통행 속도를 보장하고자 지정한 차로인데요,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 버스 전용 차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구분됩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시내 도로의 중앙선 양측에,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시내 도로의 가장자리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교통신호 혼잡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설치됩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버스의 통행권 보장 효과가 다른 버스 전용 차도에 비해 매우 탁월한데요, 하지만 해당 구간의 도로는 신호체계와 차로 설정을 새롭게 짜야 하고 정류장의 시스템화도 필요하기에 차로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차선만 새로 그으면 될 정도로 설치 과정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의 동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 효용이 떨어집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실선은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색 실선 2줄은 전일제로, 청색 실선 1줄은 시간제로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전일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시간제는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것은 실선과 달리 일반 차량의 진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을 말하는데요, 차선 변경 및 건물 출입을 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물론 주행 목적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그럼 강연을 이어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평일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운영되지만, 중앙 버스 전용 차로와 달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됩니다. 그런데 설날, 추석 등의 명절에는 연휴 기간과 그 전날에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스 전용 차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버스 전용 차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했던 특별한 경험을 제시하여 강연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강연 내용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여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준언어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강연 내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정보의 출처를 밝혀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하고 있다.

2. 위 강연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가 설치되는 과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이때 청색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나요?
- ②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요?
- ③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중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④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는 일반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실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일반 차량의 동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동선이 겹칠 수 있는 건가요?

3.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에 나타난 듣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반응	듣기 전략
버스 전용 차로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한 것을 보니,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신 것 같군.	강연자의 강연 준비 상황을 추측하면서 듣는다.……… ①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언제나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버스 전용 차도보다 버스의 통행 보장이 잘 되겠군.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②
버스 전용 차도가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버스 이용률을 높이려는 목적이었군.	강연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면서 듣는다.…… ③
버스 전용 차도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해 주었으니, 그 뒤에서는 각 버스 전용 차도의 특징을 설명해 주겠군.	강연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듣는다.…… ④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평일에만 운영된다고 생각했는데, 중앙 버스 전용 차로처럼 휴일에도 운영되는군.	강연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면서 듣는다.…… ⑤

[4~7] (가)는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 참가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 참가자 모집 공고문]
 2020년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주요 활동 내용 : 도보 기행, 국제 평화 토론 및 교육, 공동체 활동
- 모집 대상 : 지역 내 고등학생
- 선발 방법 : 자기소개서 및 면접
- 신청 방법 :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에 제출

(가)

작년부터 저는 우리나라 음식을 알리는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세계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유튜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요, 그중 제가 작년에 경험한 모의 유엔 동아리 활동은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모의 유엔 동아리는 국제적인 안전에 대해 유엔의 각국 대사 역할을 맡아 가상으로 토론과 협상, 결의안 작성 등을 하고, 그로써 협상 및 발표 능력을 배양하는 모임입니다. 이 동아리에서 분과별 의제를 정해 다양한 모의 토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저는 최근에 친구들의 추천으로 ‘우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학급 친구들과 가장 잘 지내는 친구에게 주는 상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탓만 하며 저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꿔 남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A] 그러니 남들도 저의 좋은 점을 발견해 주고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정상을 받게 된 것도 저의 변화를 친구들이 좋게 바라봐 준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남들과 잘 어울리는 면모는 단체 생활을 하는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동행하고 교류하며 세상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제 꿈을 이루는 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변인들에게 힘과 웃음을 줄 수 있는 햇살 같은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면접자: 안녕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피면접자: 네, 감사합니다.

면접자: 자기소개서에 모의 유엔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난민 문제에 대한 주제로도 토론한 적이 있나요?

피면접자: 네. 최근에 토론해 보았습니다.

면접자: 요즘 난민 문제가 국제 평화와 관련해서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토론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난민 문제에 접근했나요? [B]

피면접자: 저는 토론 전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면접자: 그렇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장거리로 도보 기행을 하는 일정이 많습니다. 또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의 단결력을 기르기 위해 등산도 몇 차례 진행합니다. 이 힘든 과정들을 버틸 수 있을까요?

피면접자: 평화 순례를 하려면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주말마다 수영을 하고, 점심시간에 친구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서 체력을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화 순례에 계획되어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자신이 있습니다.

면접자: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 체력에는 자신 있다는 말이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순례 도중에 협동 과제 활동을 할 때, 모둠원들의 생각이 각각 달라 따로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모둠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그 모둠원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습니까? [C]

피면접자: 협동 과제 활동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해 가며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둠원에게 이러한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 함께하기를 설득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둠원 전부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협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4. 다음은 학생이 (가)를 작성하기 전에 글쓰기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가)에 활용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을 드러내야겠어. ①
-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부각하기 위해 나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활용해야겠어. ②
-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준비 정도를 전달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과 대회 수상 경력을 제시해야겠어. ③
-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에 국제 교류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을 언급해야겠어. ④
-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 위해 참여자로서의 나의 다짐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나타내야겠어. ... ⑤

5. <보기>는 [A]의 초고이다. 선생님이 조인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편 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저는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민지와는 단짝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예전에는 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누구보다도 학급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남들과 잘 어울리는 면모는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는 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생님의 조언]**
- 공동체 활동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①
 - 대인 관계에 대해 집착할 수 있게 하는 최근의 사례를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②
 -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중심으로 쓰면 어떨까? ③
 - 너의 성격을 지원하는 곳과 연결해 참가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어떨까? ④
 -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너의 성격의 장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예화를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⑤

6.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여 긴장을 풀어주려 하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미리 제공된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 ④ '피면접자는 '면접자가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이 앞서 발언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 ⑤ '피면접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자신이 '면접자'의 의도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7.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는 갈등 상황의 원인을 묻는 질문을, [C]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② [B]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을, [C]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B]는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묻는 질문을, [C]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B]는 지원자가 미리 약속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C]는 지원자가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B]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C]는 지원자의 공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예상 독자 분석

- 일부 학생들은 스크린 상한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급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스크린 상한제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의 초고

최근 극장가에서는 특정 영화의 상영 점유율이 80%를 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다양한 영화를 보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물리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 비중이 50% 이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는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흥행 영화가 스크린을 독차지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스크린 상한제는 오히려 관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 상한제 실시로 관객이 관람하고 싶어 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대에 예매할 수 없다면, 이는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다. 스크린 상한제가 실시되면 인기가 높은 영화를 예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암표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스크린 상한제는 극장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여 극장에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극장의 입장에서 흥행이 보장된 영화는 주요 수입원이라서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되어 이들의 상영 비중이 축소될 경우 극장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처럼 흥행이 보장된 영화의 상영 비중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상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상품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스크린 상한제 실시로 독립·실험영화 등 비상업영화의 상영이 보장되어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영화가 단순히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상영 횟수를 규제한다면 극장에서는 해당 영화의 장기 상영을 추진하여 수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업영화 위주로 상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스크린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이 갖춰지는 않을 것이다.

끝으로,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좌석 판매율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 상한제는 영화 산업 전반에 있어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 상한제는 여러 부작용을 안고 있으므로 영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8. ㉠~㉣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스크린 상한제의 개념을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하여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의 의도를 드러낸다.
- ③ ㉢을 고려하여 관객과 극장이 받고 있는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스크린 상한제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하여 스크린 상한제의 실시로 관객의 영화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
- ⑤ ㉣을 고려하여 스크린 상한제가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무관함을 밝히며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보기>는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 전체 응답자 중 56%가 스크린 상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영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중략)… 이러한 영화의 상영 비중을 규제하면 ㉡ 관객이 보고 싶은 영화를 관람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 인기가 높은 영화에 대한 관객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중략)… ㉣ 대형 흥행 영화는 극장의 주요 수입원이다. …(중략)…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크린 상한제가 영화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영화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영화 전문 잡지 『○○』 -

-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스크린 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영화를 보기 어렵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를 구체화하여, 스크린 상한제는 인기가 높은 영화의 상영 비중을 축소시키므로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임을 제시했다.
- ③ ㉢를 참고하여, 스크린 상한제로 인기가 높은 영화의 상영 횟수를 규제한다고 해서 관객이 다른 영화를 선택하여 보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④ ㉣를 이유로 들어, 스크린 상한제로 인해 극장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스크린 상한제가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를 참고할 때, (나)를 반박하기 위한 사고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것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양(量)과 질(質)에 대한 검증은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양의 검증은 주장 및 근거가 완벽한지, 충분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질의 검증은 주장 및 근거가 일관성이 있는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시의성에 맞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 것인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 ① 스크린 상한제로 인해 압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의 검증에 따라 주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지적해야겠군.
- ② 스크린 상한제가 상업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은 스크린 상한제가 비상업영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양의 검증에 따라 주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해야겠군.
- ③ 스크린 상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한 것은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비중을 제한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질의 검증에 따라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해야겠군.
- ④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점유율과 좌석 판매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질의 검증에 따라 사실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임을 지적해야겠군.
- ⑤ 인기가 높은 상업영화의 상영 횟수를 규제하면 해당 영화의 상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한 내용이므로, 질의 검증에 따라 시의성에 맞지 않는 주장임을 지적해야겠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와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로, 선어말 어미 '-았/었-'과 '-더-',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실현된다.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로, 동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ㄴ-' 및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이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ㄹ-'이 사용된다.

중세 국어에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로 '-더-', '-는/ㄴ-', '-(으)라' 등이 사용되었다.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거나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하였으며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는-'를 써서 표현하였다. 형용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하였고 현재 시제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도 쓰지 않았다. 미래 시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선어말 어미 '-(으)리-'를 통해 표현하였다.

근대 국어로 오면서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는/ㄴ-', '-겠-'이 나타났으며, 중세 국어의 시제 선어말 어미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았/었-'은 동사에 한정되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형용사의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여전히 선어말 어미 '-더-'가 사용되었다. '-는/ㄴ-'은 동사의 어간에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냈었는데, 형용사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여전히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았다. '-겠-'은 동사와 형용사 모두에서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이러한 근대 국어의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는/ㄴ-', '-겠-'은 각각 현대 국어의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는/ㄴ-', '-겠-'으로 이어졌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민호는 그가 범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 경보음이 울리면 달리던 차들도 서야 한다.
 ㉢ 그녀는 회사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운동장으로 가렴.
 ㉤ 외모가 닮은 쌍둥이조차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 ① ㉠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② ㉡에서는 동사의 어간에 결합한 '-던'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섬을 나타내고 있군.
- ③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섬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에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없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군.

12. [A]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시제 체계에 따른 용언들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3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① <u>굴</u> 하다 (갈다)	굴한다	굴하느다	굴하리라	굴하더라	굴한다	굴하리라
② <u>버리</u> 다 (버리다)	버리다	버리느다	버리리라	버리더라	버린다	버리겠다
③ <u>맞나</u> 다 (만나다)	맞나다	맞나느다	맞나리라	맞나야다	맞나다	맞나겠다
④ <u>꾸짖</u> 다 (꾸짖다)	꾸짖더라	꾸짖다	꾸짖겠다	꾸짖야다	꾸짖는다	꾸짖겠다
⑤ <u>알프</u> 다 (아프다)	알프더라	알프다	알프리라	알프다	알프다	알프겠다

13. a~c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앉거나[안껴나], 훑지[훑찌], 읊다[읍따]
 ㉡ 물엿[물련], 술잎[술립], 풀잎[풀립]
 ㉢ 늦여름[느녀름], 발이랑[반리랑], 부엌일[부엍닐]

- ① ㉠과 ㉡는 모두 두 형태소 사이에 원래 없었던 음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을 겪는다.
- ② ㉠과 ㉢는 모두 뒷말의 초성에 동화되어 앞말의 종성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을 겪는다.
- ③ ㉡와 ㉢는 모두 자음의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고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을 겪는다.
- ④ ㉠~㉢는 모두 앞말의 종성에 영향을 받아 뒷말의 초성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을 겪는다.
- ⑤ ㉠~㉢는 모두 음절말 위치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가짓수가 제한되는 음운 변동을 겪는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과 '못'을 사용하거나 부정 용언 '아니하다(않다)'와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든다. '안'과 '아니하다'를 사용한 부정문은 주체가 행위의 의지를 가지지 않거나 단순한 사실을 부정할 때 쓰인다. '못'과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문은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주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 쓰이며, 형용사와 결합할 때에는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 자 료 >

㉠ 현이는 청소를 하지 않았고, 그날 날씨는 별로 안 더웠다.
 ㉡ 그는 한 시간도 못 견디고 항복했고, 결국 그는 이기지 못했다.
 ㉢ 잘 견뎌낸 고양이가 견지 못해서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 가려고 한다.

- ① ㉠의 '안'은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한 사실을 부정함을, ㉡의 '못'은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군.
- ② ㉠의 '않았고'를 '못했고'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의 '안'은 '못'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군.
- ③ ㉠의 '않았고'는 주체의 의지와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의 '안'은 주체의 의지만을 부정하는군.
- ④ ㉡의 '못했다'는 주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의 '못해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함을 나타내는군.
- ⑤ ㉢의 '못'을 '안'으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지만, ㉢의 '못해서'는 '않아서'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는군.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분석할 때, ㉠에 해당하는 예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1 >

'여기 있는 학생 전부가 손을 들었다.'와 '나는 그 소설을 전부 읽었다.'에서의 '전부'는 각각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이렇게 국어에는 ㉠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보 기 2 >

소희: 민수야 오늘처럼 추운 날에 놀이공원을 간다고?
 민수: 응, 슬기랑 가기로 했어. 슬기도 만큼이나 어디로 놀러 가고 싶었던 모양이야. 너도 같이 갈래?
 소희: 난 오늘 못 가. 해야 할 학원 숙제가 다섯 개야. 어휴.
 민수: '어휴'라니 너 요즘 그 말 습관 됐어. 그러다 말버릇이 굳어 버리면 고치기 어려워. 그나저나 숙제가 다섯이나 된다니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소희: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
 민수: 어디. 이번 중간고사에서 일등 한 애 아니랄까 봐. 나도 오늘 재미있게 놀고 내일부터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소희: 그래. 저기 슬기 온다. 큰 골목에 공사한 시멘트가 아직 안 굳어 위험하니깐 조심해. 잘 다녀와.

- ① 오늘, 어디, 다섯 ② 만큼, 다섯, 굳어
- ③ 만큼, 어디, 굳어 ④ 오늘, 만큼, 다섯, 어디
- ⑤ 오늘, 만큼, 다섯, 굳어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술 비평이란 예술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비평가가 개별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언어적 활동이다. 예술 비평은 작품에 미적 속성을 부여하는 미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미적 판단은 "X는 아름답다."라는 서술문으로 ㉠ 나타나며 비평가의 직접 감상을 기초로 한다. 미적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타당하게 수용하거나 논박할 수 있는 진술이어야 한다. 이때 미적 판단이 어떻게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진술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미적 판단의 정당화 문제라고 한다. 비인지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 비인지주의 이론에서는 미적 판단이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주관적 선호를 표현하는 진술이라고 보았다. 비인지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스크루턴은 미적 판단은 작품에 대한 호불호의 태도를 나타내고 그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스크루턴은 판단 내용의 진리치에 관한 논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미적 판단의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할 수 있으며, 이 논의는 판단 주체가 따르는 규범들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규범들은 작품 감상과 관련해서 널리 동의된 보편적인 규범이다. 예를 들어 한 작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상반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미적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누구의 선호가 적절한지를 그가 ㉢ 따르는 규범의 적절성을 토대로 논할 수 있다. 이때 규범의 적절성은 직관적으로 파악되며, 한 규범이 적절한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스크루턴의 이론은 미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한 사람의 판단이 올바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는다.

반면, ㉣ 인지주의 이론에서는 미적 판단이 작품에 미적 속성을 부여하는 명제를 나타내며 이 명제에 관한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지주의 이론가인 레빈슨은 이러한 명제를 나타내는 미적 판단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다. 레빈슨에 따르면, 미적 판단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나타내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미적 사태가 필요하다. 미적 사태란 미적 속성을 작품에서 지각하는 감상자의 경험을 뜻한다. 그리고 미적 속성이란 감상자가 작품에서 인식하는 고차적인 지각을 뜻하며, 이 속성은 색조, 명도, 대상의 배치, 구도 등 작품의 하위 요소들의 특정한 조합에 수반한다. 가령 아름다움, 우아함, 조화로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상자가 작품의 하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지각해도, 이를 미적 속성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레빈슨은 미적 판단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에 적절한 감상자 조건을 추가한다. 적절한 감상자란 하위 요소들을 조합해서 미적 속성으로 구성하는 미적 감수성을 가진 감상자를 뜻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상자의 미적 사태는 미적 판단을 참으로 만드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레빈슨은 미적 불일치가 ㉤ 생길 경우, 미적 판단의 진위를 따지는 것을 통해 상반되는 미적 판단 중 적절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미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작품의 하위 요소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이 참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의 판단을 비판한다. 비평적 논쟁을 통해 정당한 근거를 갖는 미적 판단이 정해지면 불일치가 해소된다.

하지만, 예술 비평에서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미적 감수성을 공유하는 복수의 비평가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두 판단 주체가 내린 상반되는 미적 판단 모두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비평가의 미적 판단은 통시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비평가의 미적 감수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가령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상한 고전의 경우, 비평가는 그 작품을 여러 번 감상할 수 있다. 반복되는 감상 경험과 비평적 논쟁을 통해 미적 감수성이 변하게 되고, 비평가는 자신의 과거 판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평가가 과거나 현재나 미적 감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시점의 미적 판단 모두 정당한 근거를 갖는 판단이 된다.

미적 판단의 복잡한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맥팔레인은 ㉦ 정교한 인지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적 판단의 참은 발화 맥락 관련 사실들과 판정 맥락 관련 사실들에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화 맥락이란 미적 판단을 발화한 맥락을 의미하며, 발화 맥락 관련 사실들에는 미적 판단의 발화자가 ㉧ 갖는 미적 감수성과 예술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판정 맥락은 미적 판단의 진위를 판정하는 맥락으로, 판정 맥락 관련 사실들에는 판정자의 미적 감수성과 더불어 예술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두 비평가 A, B가 한 작품 W에 대해서 상반되는 판단을 ㉨ 내린 경우, A의 "W가 아름답다."는 판단은 이를 발화한 A의 미적 감수성을 고려하면 참이지만, A의 판단 내용의 진위를 판정하는 B의 미적 감수성과 그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고려하면 거짓이 된다. 이처럼 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의 진위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예술 비평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양상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비평의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한 후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 미적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한 후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예술 비평의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한 후 그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예술 비평 이론가들의 영향 관계를 밝힌 후 그들이 미적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미적 판단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한 후 미적 판단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미적 판단의 진위에 관해 논쟁할 때 언급되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② 같은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들의 불일치는 어떤 규범들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③ 미적 판단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④ 예술 비평에서 비평적 논쟁을 통해서 비평가가 자신의 미적 판단을 철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예술 비평에 참여하는 비평가들이 개별 작품을 평가하면서 부여하는 미적 속성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1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미적 판단이 개별 작품에 대한 판단 주체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 ② ㉠은 ㉡과 달리,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따르는 보편적인 규범이 적절한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은 ㉠과 달리, 미적 판단이 참이 되기 위한 근거는 미적 감수성을 갖춘 적절한 감상자의 미적 사태라고 주장한다.
- ④ ㉡은 ㉠과 달리, 작품에 부여되는 미적 속성은 작품의 하위 요소들을 지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과 ㉡ 모두, 미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두 미적 판단 중 어떤 미적 판단이 적절한 판단인지를 논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9. [정교한 인지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비평가의 미적 감수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미적 판단이 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 ② 판정 맥락 관련 사실과 발화 맥락 관련 사실에는 발화자와 판정자의 미적 감수성에 관한 정보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 ③ 미적 판단의 진리치에 관해서 논쟁할 수 없는 이유는 판정 맥락과 발화 맥락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④ 판단 주체가 가진 예술사에 대한 지식을 고려한다면, 판단 주체의 미적 판단의 참과 거짓에 대한 판정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같다고 주장한다.
- ⑤ 한 사람이 "이 작품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맥락에서는 이 판단이 참이어도, 다른 사람이 이 판단의 진위를 판정하는 맥락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갑'과 '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르네상스 미술을 공부한 비평가인 '갑'과 바로크 미술을 공부한 비평가인 '을'은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제작된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갑: 이 작품은 조화롭지 않아. 르네상스 시대에는 캔버스 중앙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이나 사물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안정적 구도가 회화에서 성취할 수 있는 조화로움으로 간주되었어. 그런데 이 그림은 식탁이 캔버스를 가로지르게 해서 정적인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있어.

을: 네 말은 틀렸어. 이 작품은 조화로워. 바로크 시대의 조화로움은 상반되는 요소들의 분명한 대비에 있어. 이

작품은 대각선으로 놓인 식탁을 활용해서 성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과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을 대비하고 있어. 그리고 광원을 제한하고 얼굴과 몸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기도 하지.

- ① 갑에 대해 레빈슨은 작품에서 조화로움이라는 고차적인 지각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작품이 조화롭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을에 대해 레빈슨은 작품의 구도나 명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인식하므로, 작품에서 조화로움이라는 속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갑에 대해 스크루턴은 작품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권하므로, 갑의 판단이 갑의 객관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겠군.
- ④ 을에 대해 맥팔레인 은 갑의 미적 판단을 을의 미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반박하므로, 갑의 미적 판단은 을의 판정 맥락에서 거짓이라고 보겠군.
- ⑤ 갑과 을 모두에 대해 맥팔레인은 각자 다른 시대의 미술을 공부해서 서로 다른 비평가 집단에 속하므로, 상반되는 미적 판단을 내린다고 보겠군.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젯밤에 사건의 목격자가 경찰 앞에 나타났다.
- ② ㉡: 공동체 관습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③ ㉢: 버섯 모양으로 생긴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었다.
- ④ ㉣: 양측 대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
- ⑤ ㉤: 이 층에서 식기와 가구를 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빌렸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강하기도 한다. 대기에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에는 외부 공기와의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온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단열 변화'라고 한다. 단열 변화는 구름이 생성되는 원인 이므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열 변화의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기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상승할수록 기압이 낮아지며 그에 따라 부피가 커진다.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공기 덩어리가 외부 공기를 밀어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외부 공기를 밀어낸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여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단열 변화를 '단열 팽창' 또는 '단열 냉각'이라고 한다. 반면 대기에서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는 하강할수록 기압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부피가 작아진다.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작아지는 것은 외부 공기의 영향이며, 이는 공기 덩어리가 외부 공기로부터 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면 외부 공기로부터 받은 일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여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단열 변화를 '단열 압축' 또는 '단열 가열'이라고 한다.

한편 단열 변화에 따른 공기 덩어리의 기온 변화율을 '단열 감률'이라고 한다. 그중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고도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정도를 '건조 단열 감률'

이라고 한다. 건조 단열 감률은 지구상에서 때나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는 건조 단열 감률이 중력 가속도를 건조 공기의 정압 비열*로 나누어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중력 가속도와 건조 공기의 정압 비열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상수이다. 건조 단열 감률에 따르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단열 팽창할 때에는 100m마다 기온이 약 1℃씩 내려가며, 하강하여 단열 압축될 때에는 100m마다 기온이 약 1℃씩 올라간다. 이와 달리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고도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정도를 '습윤 단열 감률'이라고 한다. 대기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에 이르면 내부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응결이 일어나게 되어 수증기에 있던 에너지가 습윤열의 형태로 방출된다.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는 고도의 상승에 따른 기온의 하강 비율이 건조 단열 감률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습윤 단열 감률은 응결하는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는 정도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는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약 0.5℃씩 내려간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기온이 감소한다. 이때 공기 덩어리에 포함된 전체 수증기의 양은 변화가 없지만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단위 부피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절대 습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공기 덩어리 내부의 수증기가 응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증기가 응결되려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더 낮아져야 한다. 이로 인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에는 응결이 발생하는 기온인 이슬점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이슬점 감률'이라고 한다. 이슬점 감률에 의하면, 불포화 상태인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100m당 약 0.2℃씩 낮아지고 포화 상태인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100m당 약 0.5℃씩 낮아진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높이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한다. 만약 ㉠지표면에 있는 공기 덩어리의 기온 및 이슬점을 알고 있다면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

- * 포화 상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 * 정압 비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1g의 물체의 기온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22. 다음은 읽기를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읽기를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단열 변화에 따라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예측과 같음 …… ①
○ 단열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단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여 소개할 것이다.	예측과 다름 …… ②
○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가 외부 공기와 열 교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 ③
○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기온이 달라질 경우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 ④
○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에서 일어나는 단열 변화의 양상이 실제 상황에 적용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되지 않음 …… ⑤

23. 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단열 가열될 때 외부 공기를 밀어낸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 ②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단열 냉각될 때 평지보다 산악 지대에서 더 큰 폭으로 기온이 감소한다.
- ③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에 포함된 전체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절대 습도가 감소한다.
- ④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감소하는 정도는 이슬점이 감소하는 정도와 유사하다.
- ⑤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공기 덩어리의 내부에서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공기 덩어리는 외부의 열을 흡수하게 되어 기온이 증가한다.

24. ㉠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현재 지표면에 기온이 24℃이고 이슬점이 16℃인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 A가 있다. 이 공기는 상승하면서 단열 변화 과정을 거친다.

- ① A가 상승하는 순간부터 내부의 수증기가 응결하므로 이슬점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 ② A가 상승할수록 외부 공기와 열을 더 주고받으므로 지표면에 있을 때보다 기온이 낮아진다.
- ③ A가 상승하여 고도 400m에 다다를 때 지표면에서보다 기압이 더 낮아지므로 외부 공기를 덜 밀어낸다.
- ④ A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14℃가 될 때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므로 A의 상승 응결 고도는 1,000m이다.
- ⑤ A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16℃가 될 때 포화 상태에 이르므로 A의 기온은 지표면부터 고도 800m까지만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낮아진다.

25. 읽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위 그림은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 있는 불포화 공기 덩어리 B가 산 정상 넘어 서쪽 해면 고도까지 이동할 때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때 동쪽 해면 고도에서의 B의 기온은 15℃이다. B는 동쪽 해면 고도에서부터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고도 500m에 다다르자 구름이 만들어졌고, 산 정상인 고도 1,700m에서 B에 포함된 수증기가 전부 비로 빠져나가 불포화 상태가 되었다. 이후 B는 산 정상에서 서쪽 해면 고도까지 하강하였다.

- ① 산 동쪽을 이동하는 B의 기온 변화폭은 산 서쪽을 이동하는 B의 기온 변화폭보다 작겠군.
- ② B가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 있을 때 B 내부에 있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는 기온은 11℃이겠군.
- ③ B가 산 정상으로부터 서쪽 해면 고도에 도달할 때 서쪽 해면 고도에서의 B의 기온은 20℃보다 높겠군.
- ④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서 기온과 이슬점이 B보다 각각 5℃씩 높은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어가면 고도 500m보다 높은 지점에서 구름이 생성되었군.
- ⑤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서 기온은 같은데 이슬점이 B보다 8℃ 낮은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어가면 B의 이슬점이 0℃가 되는 고도에서부터 습윤 단열 감률이 적용되었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손(bad debt)이란 신용판매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대손이 판명되는 시점은 상품의 판매 시점과 달라서 별도의 회계 처리가 요구된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대손상각비인데, 대손상각비는 채권의 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한 비용 계정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손상각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접차감법과 충당금법이 있다. ㉠직접차감법은 대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손상각비 계정에서 손실을 반영하여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대손발생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별도의 차감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대손상각비 계정에서 손실을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직접법이라고도 한다. 직접차감법에서는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손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지만, 이 비용을 당기 매출수익에 대응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직접차감법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대손상각비 계정이 늘어나고, 매출채권 계정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로부터 3,000만 원의 매출채권을 받았으나 이후에 B사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러면 A사에는 3,000만 원의 대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A사는 비용 계정인 대손상각비가 3,000만 원 늘어나고 자산 계정인 매출채권이 3,000만 원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을 미리 충당해두는 충당금법이 제기된다.

㉢충당금법은 기말이 되어 해당 회계 기간의 매출수익이 발생했을 때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충당금법은 채권의 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기에 간접법이라고도 부른다. 충당금법에서는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이 대손발생액만큼 줄어드는 방식으로 대손을 충당한다. 만약 직접차감법에서 언급했던 예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A사가 충당금법을 사용한다면, A사의 대손충당금 계정이 3,000만 원, 매출채권 계정 역시 3,000만 원이 줄어든다. 이처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출수익이 발생한 기말에 대손상각비가 인식된다. 여기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이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충당금법에서는 매 회계기간 말에 대손발생액을 추산한 후 대손충당금 수정 전 잔액과 비교한다. 이 대손추산액이 수정 전 잔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비용인 대손상각비가, 작으면 그 차액이 수익인 대손충당금환입이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충당금법만을 올바른 대손처리 방법으로 인

정하고 있다.

충당금법에서 대손발생액을 추산하는 방법에는 매출채권잔액 비율법과 경과기간분석법이 있다. 먼저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은 대손율을 추정하고 대손추산액을 결정한 뒤, 대손충당금의 수정 전 기말 잔액과 비교한다. 이때 대손율은 전기 대손발생액을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손추산액은 당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에 대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가령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을 사용하는 C사의 전기 대손발생액이 5,000만 원,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100,000만 원, 당기 대손충당금 수정 전 기말 잔액이 3,000만 원, 당기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이 50,000만 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C사의 당기 대손율은 5%, 당기 대손추산액은 2,500만 원이다. 이때 당기 대손추산액이 당기 대손충당금 수정 전 기말 잔액보다 적기 때문에 500만 원의 대손충당금환입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경과기간분석법은 대손율을 적용할 때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경과기간분석법에서 개별률을 적용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 후 기간이 더 오래 경과할수록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기본 절차는 매출채권잔액비율법과 동일하다. 이때 개별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손율이 100%로 추정되는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수정하기 전에 대손처리해 준다. 경과기간분석법은 개별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대손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별로 대손율을 추정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매출채권잔액비율법보다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대손추산액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문제는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준다. 특히 주요 영업이익이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은행의 경우, 대손상각비 추정 방법에 따라 수익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대손상각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대손충당금을 너무 높거나 낮게 잡으면 은행의 금융 안정성이 저해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지켜야 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대손충당금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수정 후 잔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해야만 기말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이때의 기준은 은행감독 목적상 요구되는 최소적립기준과 기대손실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며, 은행의 수정 후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이때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은행의 당기 대손상각비로 처리된다.

* 매출채권 :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아들음(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 계정 :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기록하는 항목.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이 발생한다.
- ② 직접법에서는 대손이 확정될과 동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은 매 회계기간마다 같은 대손율을 적용한다.
- ④ 경과기간분석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대손을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⑤ 당기 대손추산액보다 대손충당금 계정의 잔액이 많다고 해서 기업의 금융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당기 매출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에서는 기말에 대손상각비 계정이 당기 대손발생액만큼 늘어 난다.
- ③ ㉠은 ㉡과 달리 대손이 발생할 때마다 대손충당금 계정을 수정 한다.
- ④ ㉡은 ㉠과 달리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금액을 추정한다.
- ⑤ ㉠과 ㉡은 모두 대손발생액에 관계없이 올바른 대손처리 방법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8. <보기>는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을 사용하는 C사가 작성한 회계장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20XX.12.31. (기말)			
전기 대손발생액	1,000만 원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	100,000만 원		
당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	300,000만 원		
대손충당금 수정 전 기말 잔액	1,000만 원		
(㉠)	(㉡)		
당기 매출수익 (㉢)			

* 단, 당기 매출수익의 변동은 대손에 의한 것만 고려한다.

- | | | | |
|---|---------|----------|-------|
| | ㉠ | ㉡ | ㉢ |
| ① | 대손충당금환입 | 1,000만 원 | 변화 없음 |
| ② | 대손충당금환입 | 2,000만 원 | 증가 |
| ③ | 대손상각비 | 2,000만 원 | 감소 |
| ④ | 대손상각비 | 2,000만 원 | 변화 없음 |
| ⑤ | 대손상각비 | 1,000만 원 | 변화 없음 |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Y 은행의 12월 말 현재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700,000원 이고 대손충당금 수정 전 잔액은 300,000원이다. 매출채권의 경과기간과 대손율은 다음과 같다.			
경과기간	매출채권 잔액	대손율	대손추산액
3개월 이내	300,000원	10%	30,000원
3개월-9개월 이내	250,000원	30%	75,000원
9개월-12개월 이내	160,000원	50%	80,000원
1년 초과	40,000원	100%	40,000원
총계			225,000원

Y 은행은 대손액을 추산할 때 경과기간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충당금을 적립할 때는 별도의 은행감독 규정을 따랐다. 은행감독 목적상 요구되는 최소적립기준은 100,000원이고, 기대손실은 20,000원이다.

- ① Y 은행의 당기 대손상각비는 75,000원이다.
- ② Y 은행은 매출채권의 대손 가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대손율을 적용한다.

- ③ Y 은행이 현재 기말에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25,000원 이다.
- ④ Y 은행이 충당금을 적립할 때 은행감독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손충당금을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경과기간이 1년 초과인 매출채권은 기말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 확정 금액인 40,000원은 수정 전에 대손처리 해 줘야 한다.

30.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분다 ② ㉡ : 메울
- ③ ㉢ : 거두어들이지 ④ ㉣ : 쥔
- ⑤ ㉤ : 갖추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동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가 자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놓을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內外)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앓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쭉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옥히 끼일 일인 것이다.

* 지란(芝蘭): 영지와 난초.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나)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야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시월상달: '시월'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햇곡식을 신에게 드리기
에 가장 좋은 달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원경과 근경의 대비를 통해 자연에 대한 화자의 무상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우리들이' '타고난 마음씨'를 가졌다고 한 것을 통해, 물질적 한계를 이겨 낼 선천적 가치의 중대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상에게 '더러는' 앓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우라고 한 것을 통해, 간절한 기원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면 모습으로 '홀로 긴 밤' 동안 울었다고 한 것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고 있던' '가락을 더듬었다고 한 것을 통해, 화자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잊고 있었던 추억으로 애상감에 젖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산마루에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한 것을 통해, 화자는 혼자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공간'은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화자의 심정을 구체화하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공간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그려내거나, 화자의 독특한 내면 세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공간을 통해 지향하는 세계를 나타낼 경우, 화자는 공간과 '동화'를 감행하여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다. 그리고 공간을 통해 내면세계를 나타낼 경우, 화자는 공간의 '방향성'을 토대로 자신의 염원을 발현하며 삶에 대한 기쁨과 겸허한 태도를 내비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여름 산'의 '갈매빛의 등성이'를 바라본 것은 '산'을 시각적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 여겨 지향하는 세계로 바라본 것이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산'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새기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산'을 화자와 거리감을 지닌 대상으로 여겨 동화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군.
- ③ (나)에서 화자가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서서 바람이 맑다고 느낀 것은 '산마루'를 수직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자신의 고고하고 정결한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이군.
- ④ (나)에서 화자가 '산마루'에서 이마 위로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다고 한 것은 '산마루'를 맑은 세상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여겨 간구하던 대상을 맞이한 기쁨을 발현하는 것이군.
- ⑤ (나)에서 화자가 '산마루'에서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고 한 것은 '산마루'를 화자의 염원과 지향이 나타난 공간으로 여기며 겸허한 마음가짐 또한 갖기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밤 박생은 등불을 돌우고 역경(易經)을 외우다가 몸이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홀연 거드랑이에 푸른 날개가 돌친 듯하더니 문득 한 곳에 이르니 바닷속의 한 섬나라였다.

그곳에는 조복도 모래도 없고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나 쇠붙이요, 낮이면 사나운 불꽃이 공중에 뿔쳐 땅덩이가 녹아내리는 듯하고 밤이면 쌀쌀한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 사람의 뼈끝을 에는 듯하였다. 그리고 철성(鐵城)이 바다에 닿아 있고 높이 솟은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몸시 영악하게 생긴 수문장은 창과 철퇴로 외적을 방어하고, 사람들은 검은 쇠로 장식한 건물에 살고 있는데 낮이면 쇠물이 녹아내리고 밤이면 얼어붙었다. 그러나 아침저녁이 되면 웃음과 말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이를 본 박생이 두려움을 느끼는 때에 수문장이 손을 들어 박생을 불렀다. 박생은 몸시 당황하여 몸을 떨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수문장을 창을 세우고 박생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예, 저는 아무 나라에 사는 박아무개입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일찍이 듣자오니 유학자는 남의 위협을 받더라도 굴복하지 않는다 하던데 어찌 선비님은 지나친 경의를 표시하시오? 우리 왕께서 선비님같이 이치에 통달한 분을 만나 동방의 사람에게 한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 여기 앉아 잠깐 기다리시면 내 곧 국왕께 아뢰겠소."

(중략)

왕이 박생에게 삼한(三韓)의 흥망(興亡)에 대해 물었더니, 박생이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고려의 창업에 이르자, 왕이 여러 번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억눌러서는 안 되는 것이니 백성들이 비록 두려워 따르는 것 같으나 마음속에는 반역할 뜻을 품게 되어 끝내는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또 덕이 없이는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니 하늘이 비록 묵묵히 말은 없을지라도 그 명령은 엄한 것이요, 또 대체로 나라는 백성의 것이요,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니 천명(天命)이 떠나고 민심이 떠난다면 아무리 자기 몸을 보존하려 한들 어찌 되겠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異道)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염왕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흉수와 가문의 재앙이 생기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매사에 삼갈 것을 경고한 것이요, 백성이 원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을 더욱 교만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니 역대의 제왕들이 재앙을 입을 때 그 백성들은 편안했겠소, 원망하였겠소?”

박생이 대답하였다.

“간신(姦臣)들이 별처럼 일어나고 큰 난리가 여러 번 일어나도 임금은 백성을 억눌러 다스렸으니 백성이 어찌 편안했겠습니까?”

대왕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아! 그대의 말씀이 옳소.”

문답이 끝나자 염왕은 잔치를 거두고 자신의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주려고 손수 선위문(禪位文)을 지었다.

염부주의 땅은 무서운 풍토병이 많은 곳이므로 우왕(禹王)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의 준마도 이르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덮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쇠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뜨거운 쇠덩이를 먹어야 한다. 야차(夜叉), 나찰(羅刹)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펴 수가 없다. 화성(火城)이 천 리에 뻗어 있고 철산(鐵山)이 만 겹이나 둘러 있다.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나워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지세도 험준하니 신성한 위엄이 없으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이제 동쪽 나라에 사는 박생은 정직하고 사심(私心)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고 남다른 재질(才質)을 갖추고 있다. 살아 있을 때에는 비록 높은 벼슬을 못 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도덕과 예법으로 백성을 다스려 온 누리를 태평하게 해 주시오. 내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요임금께서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받아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니 그대는 삼가 받으시오.

박생이 이 선위문을 받들어 예식을 마치고 물러간 뒤에 염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하여 축하드리게 하고, 박생을 잠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거듭 칙령을 내렸다.

“머지않아 다시 오게 될 것이요, 이번에 나와 문답한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황당한 일을 다 없애 주시오.”

박생이 대답했다.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더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쓰러지면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책은 책상 위에 흩어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생은 한동안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자신이 죽을 것이라 짐작하였다. 박생은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기에 전념하였는데 몇 달 뒤에 병에 걸리자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던 날 밤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당신의 이웃에 살던 박생이 염대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다.

- 김시습, 「남염부주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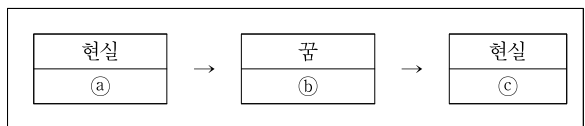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논평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비극적 결말을 통해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비현실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

35. 선위문(禪位文)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신화 속 내용을 바탕으로 박생에게 왕위를 선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될 필연성을 언급하여 박생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염부주의 혹독한 환경을 소개하여 박생이 염부주를 다스리며 겪을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염부주에 사는 백성들의 나쁜 풍속을 언급하여 박생이 왕위 계승 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박생의 인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가져야 할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을 알려 주고 있다.

36. 윗글의 서사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박생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에서는 박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② ㉡에서는 박생의 생각이 실현되고 있고, ㉢에서는 박생이 죽음을 의연하게 맞고 있다.
- ③ ㉡에서는 ㉠에서의 박생의 행적을 두고 박생과 염왕이 서로 대답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올바른 통치자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이동할 때는 현실에서의 도피가, ㉡에서 ㉢로 이동할 때는 현실에 대한 회의를 강조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이 일어나자 관료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승려가 되어 방랑하는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는 뛰어난 선비가 불우함을 겪게 되는 것은 때를 만나지 못해 뜻을 펼칠 기회를 잃었거나, 재능을 알아주는 어진 군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남염부주지」에서 덕치와 민본주의에 입각한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유가적 명분을 거스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비판하고 모순된 정치로 인한 당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염왕이 박생에게 '마땅히 도덕과 예법으로 백성을 다스려' 주길 청하는 것은 덕치와 민본주의에 입각한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겠군.
- ② 염왕이 '덕이 없이는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고 한 것은 유가적 명분을 거스르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박생이 '남다른 재질을 갖추었지만 '살아 있을 때에는 비록 높은 벼슬을 못 하였'다는 것은 뛰어난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해 불우함을 겪는 것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박생이 '병에 걸리자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한 동안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관료로서의 삶에 대한 작가의 아쉬움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박생이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큰 난리가 여러 번 일어나도 임금의 백성을 억눌러 다스렸'다는 것은 역대 제왕의 정치에 빗대어 모순된 정치로 인한 당대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논고
 - 향진이 -

(나)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에 매게 췌친 가토리 안과
 나천(大川) 바다 한 가운데 일천 석(一千石)시큰 비에 노도
 일코 닳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뚝대도 것코 치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놀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나문되
 사면(四面)이 거머 어둑 천지 적막(天地寂莫) 가치노을* 췌논되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히야 엇다가 ㅈ을 흐리오.
 - 작자 미상 -

(다)
 출(出) ㅎ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 ㅎ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名哲君子)*는 이로서 즐기느니
 ㅎ믄며 부귀(富貴) 위기(危機)라 빈천거(貧賤居)*를 ㅎ오리라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치군택민 : 임금과 함께 정치를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함.
 * 조월경운 : 달을 낚고 구름을 경작함.

* 명철군자 :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
 * 빈천거 : 가난하고 낮은 지위로 삶.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하여 화자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녹수'의 흘러감과 '청산'의 불변함을 대비하여 '내 뜻'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나무도 바히돌도 없는 피'의 불모성을 통해 '가토리'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의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져'와 (나)의 '매게 췌친 가토리 안'은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에 대한 임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청산과 '녹수'를 화자와 임에 비유하여, (나)는 '가토리 안', '도사공의 안'과 '내 안'을 비교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우리 예어 가논고'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애절함을, (나)는 '거머 어둑'에서 시각적 심상을 통해 '도사공'의 막막함을 환기하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 양반 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처(出處)'가 중요한데, 여기서 '출(出)'은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의미의 의(義)를 행하는 것으로 이는 선비에게는 일종의 의무이다. 따라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가 실현되는데 선비가 벼슬하지 않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선비는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세상이 혼탁하거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을 때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을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하는데, 이를 '처(處)'라고 한다. 그래서 선비가 은거해야 할 때 벼슬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출처는 운신의 폭을 결정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선비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가를 통해 토로하였다.

- ① '치군택민'은 벼슬길에 나아가 선비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의를 행하는 모습이겠군.
- ② 만약 화자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화자는 '조월경운'하며 '출'을 거부하겠군.
- ③ '명철군자'는 '출'과 '처'의 상황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가 실현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겠군.
- ④ 화자가 '부귀'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에는 혼탁한 세상에서 '출'의 삶을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겠군.
- ⑤ '빈천거를 ㅎ오리라'로 운신의 폭을 결정한 화자가 직면한 현실이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한 세상이었다면 그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꺾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꺾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꺾기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①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권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테서 술 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②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메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어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라.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페이맨구로 쟁쟁** 달리는 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켜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싸. 누구맨구로 반동카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③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카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썰노.** 도시에서 쫘딱 망해 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앞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 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내가 만그이 이미나. 애비나!”

(중략)

민 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 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솔로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 갔다. 민 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테서만 만났지 한번도 황만근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뽁뽁하기 잘도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 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빌(별)** 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뽁뽁뽁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지요.”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는 아는 게 없었던 민 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 끼라.”

“경운기 운전은 잘 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는 내가 쉼 오래 했을게. 경운기도 마이 늙었어. 고집이 시가이고 나 아이만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똥창까지 환하게 안개 말을 듣는 기라.”

“……내일 꺾기 대회에 가십니까.”

“내사 뭐 어머이 밥도 끓이 디리야 되고…… 모르겠소. 구장은 나 걸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카는데.”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개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 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육십 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굵은 어깨**를. 민 씨는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 씨의 집으로 가는 곳에서 꺾어 들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나)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닥되려.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리 할구 있니?!

도념: 절더러 거짓말한다구만 그러지 마시구,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주십쇼.

주지: 네 어머니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에미라기보다는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破戒)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염주면 두 번을 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육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디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뻤을 것이라구 허는 걸 보면 스님 말씀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唯識論)

에 씌인 경문 알지?

도념: 네.

주지: 외면사보살 내면여야차(外面似菩薩 內面如夜叉)라 하셨
느니라. ㉠네 에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같
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독물이야.

도념: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중략)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휘날리는 초설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
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랑을 걸머쥐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중 누가 찼나?

도념: 그럼은요. 언제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찼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을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
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랑은 왜
걸머지고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신 안 울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 아니요. 몰래 나가려고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 걸요, 뭐.

초부: 하 애,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겨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죽
이고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
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구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더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하구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 내려오는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펍펍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로**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
에서의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
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
으려구 등걸구멍에다 모아둔 것을 제가 아침에 몰래 꺼
내 뒀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릴려구요. **동지 설날 긴
진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우십시오.** (산문
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 함세덕, 「동승」 -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등장인물의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특정한 문구를 인용하여 인물이 가졌던 생각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장'의 답변에 대해 '민 씨'의 어조가 변한 것은 '민 씨'가 황만근만 따로 불렀던 '이장'의 의도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② ㉡: '민 씨'의 의견에 대해 '이장'이 반문하는 것은 '이장'이 황만근이 돌아오지 못한 책임을 '민 씨'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③ ㉢: '민 씨'의 질문에 대해 '이장'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것은 '이장'이 마을에서 자신의 지위를 수단으로 하여 '민 씨'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 ④ ㉣: '주지'가 '도념'에게 경문의 뜻을 풀어서까지 도념의 어머니를 극단적으로 평가한 것은 '주지'가 절을 떠나려는 '도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 ⑤ ㉣: '도념'이 '초부'에게 어머니 찾기를 확신하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도념'이 길을 떠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43. **농민 쫓겨 대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장은 대회가 진행되는 날 마침 '비'가 왔고 '국도에 차들이 미치케이멘구로 썩썩 달'린다고 말함으로써, '농민 쫓겨 대회'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이장은 '다른 동네 이장들과는 달리 '트럭을 타고' 갔다고 말함으로써, '농민 쫓겨 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만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민 씨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끌고 가지는 '투쟁 방침'을 대부분이 지키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농민 쫓겨 대회'가 형식적인 대회로 전락한 행사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작 '소리마 및 분 지르고 왔'다고 말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야기한 농민들이 '농민 쫓겨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민 씨는 이장의 권유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농민 쫓겨 대회'가 진행되는 데 있어 이장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회곡은 대화·독백 등의 대사나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관객이 인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화는 배우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사건을 진행시키며 배우가 겪는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낸다. 독백은 상대역 없이 배우 혼자 말하는 행위로, 관객에게 배우가 가진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지시문은 인물의 몸짓이나 무대의 효과, 배우의 행동을 지시하는 장치로, 작중 분위기와 인물의 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① [A]에서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달라는 말에 '네 어미란 대죄를 지었다는 도념과 주지의 대화는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어 두 인물이 겪는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낸다.
- ② [B]에서 초부의 지시가 '도념의 옷차림'으로 옮겨지며 '너 갑자기 비량은 왜 걸머지고 나왔냐고 하는 것은 인물의 외형을 통하여 관객이 인물의 심리에 변화가 생긴 것을 짐작하게 한다.
- ③ [B]에서 점차 어두워지는 무대 조명의 사용으로 '차츰차츰 어두워'지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것은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뇌가 심화되는 도념의 모습을 부각하여 보여 준다.
- ④ [C]에서 '동지 설달 긴긴밤 잠이 안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시라는 도념의 혼잣말은 관객에게 인물의 내면을 보여 주어 인물에 대해 집중을 할 수 있게 한다.
- ⑤ [C]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에 갑자기 '생각난 듯이' 발을 멈추고 갓을 산문 앞에 놓는 지시는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관객이 인물이 갖는 정서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이질적 교감'은 인물의 생각·외형·이미지 등에서 이질성을 발견하여 그 인물의 심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물에서 나타난 이질성을 발견한 후, 그 인물과 교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해자 교감'은 인물에 대한 이해자의 공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인물의 주체적 의지에 대하여 이해자가 관심과 동조를 보낸 후, 인물의 선택에 대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다같이 작품 속 '인물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 ① (가)에서 민 씨가 황만근의 '벌(벌)'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는 것은 황만근의 생각에서 이질성을 찾고자 하는 이질적 교감자의 모습이라 하겠군.
- ② (가)에서 민 씨가 황만근에게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것은 황만근과의 교감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질적 교감자의 모습이라 하겠군.
- ③ (가)에서 민 씨가 '주름진 얼굴', '땃대로 뺨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굵은 어깨'를 가진 황만근을 바라보는 것은 황만근의 외형에서 이질성을 찾은 이질적 교감자의 모습이라 판단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초부가 '비탈길로 가겠'다고 답하는 도념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은 도념이 선택한 삶을 인정하는 이해적 교감자의 모습이라 하겠군.
- ⑤ (나)에서 초부가 도념에게 '비량은 왜 걸머지고 나오냐'면서 평소와 다른 대상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질적 교감자의 모습으로,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가냐며 질문하는 것은 도념의 주체적 의지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바탕으로 공감적 인식을 드러내는 이해적 교감자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